

순천시, 정부에 흑두루미 서식지 확대 지원 건의



24일 순천만 흑두루미 서식지 및 AI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와 소통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방문한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순천시는 최근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순천만을 찾았다고 밝혔다. 일본의 흑두루미가 순천시로 역유입됨에 따라 순천만 흑두루미 서식지 및 AI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와 소통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제적인 멸종위기종 흑두루미 1만여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순천만 찾아 대책 마련 일본서 역유입됨에 따라 전신주 제거 등 내용 담아

마리가 순천만에서 관찰됐다. 이는 1996년 흑두루미 70여 마리가 첫 관찰된 이후 26년 만에 140배나 증가한 수치다.

11월 초부터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이즈미를 강타하고 있는 고행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를 피해 이즈미 흑두루미가 청정지역인 순천만으로 대거 이동한 것이다.

흑두루미는 전 세계 1만 7천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종으로 올해 60%가 순천만을 찾은 건 순천시가 서식 환경을 적극 개선한 이유가 크다.

시는 2009년부터 환경저해시설 철거, 습지 복원, 전봇대 282개를 뽑고 친환경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를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흑두루미의 월동지를 만드는 데 힘을 기울였다.

전 세계 흑두루미의 60%가 찾는 순천만이

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있다. 바로 흑두루미 서식지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의 서식지 상황으로 밀려오는 흑두루미를 쫓아내는 너무 좁아 흑두루미 활동 영역을 넓혀줘야 한다.

이에 순천시는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흑두루미 서식지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생태계보호지구내 전신주 제거 확대, 친환경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 확대, 동천하구 훼손지 복원사업 확대 내용을 담았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일본 이즈미 흑두루미 탈출 사태로 순천만은 전세계 흑두루미 종 보전을 위해 중요한 서식지임이 확인되었다."면서 "환경부, 문화재청 등 국가가 적극 개입해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김승호기자



고흥군 두원면, 노인돌봄 생활지원사와 T-타임 소통

고흥군 두원면은 지난 24일 면사무소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T-타임 간담회를 개최했다.

T-타임 간담회는 두원면 42개 마을을 구성구석 찾아다니는 노인돌봄 생활지원사(고흥군 사회복지협의회) 18명과 머리를 맞대 위기가 구 발굴과 민관 서비스 연계방법 등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복지업무 관계자 간 정보 공유,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의 시간으로 이루어져 원활한 업무추진과 복지 인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다.

두원면은 16개 읍면에서 두원면이 차지하는 독거노인 비중이 24%로 상당히 높은 지역임을 감안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11월부터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 325명 대상으로 '구석구석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독거노인 중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205가구를 대상으로 안부 살피기와 복지서비스 연계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와 주거환경 등을 촘촘하게 살피며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보성군, 3년 연속 축산시책 종합평가 수상... 축산행정 우수성 입증

올해 우수상...2021년에는 대상·2020년 장려상

보성군이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축산시책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수상하며 축산행정 우수성을 입증했다.

올해 보성군은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2021년에는 대상, 2020년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보성군은 ▲축산정책분야-녹색축산육성기금 지원농가 인증(100%), 축산 ICT 사업실적(90%) ▲동물복지분야-녹색축산농장 지정 목

표달성(100%), 유기동물 보호 관리 우수 ▲축산경영분야-조사료 재배 및 사업비(70%) 조기 집행, 축산물 이력제 단속(6회) 등 우수, ▲축산자원분야-깨끗한농장지정 신청 목표 달성(100%), 학생 승마체험 우수 등 전 분야에서 골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보성군은 올해 5개 분야에 사업비 약 135억 원을 투입하여 축산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료 가격 폭등에 따른 축

산농가의 경영 부담 해소를 위해 정부 특별사료구매자금(용자) 72억 원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체 사업으로 지역 축산농가 애로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올봄 극심한 가뭄으로 조사료 생산량 감소에 따른 조사료 가격 폭등은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조사료공포사일리지 구입비(5만톤)로 2억 5천만 원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가축분뇨자원화를 위한 퇴비 부속제(16톤) 1억 원을 지원, 한우인공수정료 지

원 7억 8천만 원 등 농가 경영안정 도모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앞으로도 전라남도 역점시책인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는 축산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창의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매년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축산시책 전반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축산시책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 분야는 축산정책분야, 동물복지분야, 축산경영분야, 축산자원분야, 4개 분야 28개 항목이다. 보성=김덕순기자

여수시-국민체육진흥공단, 읍면지역 건강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여수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이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읍면지역 소외계층 건강증진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박현식 여수시부시장과 박태영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무이사, 양 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은 올해 여수시가 화양면에서 추진한 주민주도형 건강관리사업 '같이운동 마을건강사업'에 전문기관으로 참여하며 인연을 맺어왔다.

'같이운동 마을건강사업'은 지역 주민이 마을별 건강 소모임을 구성해 팀별 자율 운동(걷기)과 월별 건강미션 등을 수행하고 주기적으

로 건강관리를 받는 사업이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기초체력 6개 항목 측정과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고, 소모임 활동 전후 데이터를 비교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여수시는 올해 화양면에서 사업을 진행해 13개 마을, 20팀, 187명이 사업에 참여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시는 진흥공단의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부터는 전체 읍면 지역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2025년까지 전문성을 갖춘 체력검진과 결과분석, 운동처방 등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박현식 부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같이운동 마을건강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만족도가 매우 높은 만큼 내년에는 모든 읍면으로 확대해 다같이 건강한 여수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광양시, 오늘까지 내 고장 농산물직거래장터 개최

광양시는 한국농업경영인 광양시연합회(회장 이기욱), 광양시 귀농어귀촌협회(회장 유금숙) 주최·주관으로 '2022년 내 고장 농산물 농부 직거래장터'를 광양원에농협 로컬푸드 주자장 옆 잔디밭에서 오는 27-28일(2일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농부가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소득 증대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직거래장터 형식으로 운영된다.

직거래장터에서는 양상추, 애호박, 밤, 감, 꽃감, 각종 채소류 등 지역 농산물이 판매된다.

행사를 지원하는 성재순 농업지원과장은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되는 농산물직거래장터가 지역 농부와 시민이 지속적으로 상생하는 장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양=김현근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